



김성재(일지사 대표)

‘출판’이라는 종교에의 종신서원

이 혜 경 | 본지담당

출판, 정신력을 요구하는 고된 작업

김성재 선생의 「출판의 이론과 실제」란 책이 다행히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책의 이력을 살펴보기 위해 판권면을, 아니 선생의 표현대로 ‘간기 면을 펴본다. 1990년 9월 10일에 출간된 3판 1쇄이다. 판형은 신국판이고 양장으로 제본되어 있으며 본문 인쇄는 활판으로 찍은 것으로 보인다. 초판이 1985년 4월 15일로 되어 있으니 내가 그 책을 구입했을 때는 책이 출간된 지 5년이나 지난 시기였고 지금의 시간으로 꼽아보면 17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2월 13일 김성재 선생을 만나러 출판사에 갔을때 그 책은 6판 1쇄를

준비하고 있었다.

출판에 대해 조금만 안다면 오랜 시간 동안 한 권의 책이 멀쩡하게 생존해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발행부수의 많고 적음을 따진다면, 상업적인 성공 따위로 가치를 매기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의미를 상실할 뿐이다. 한마디로 대단한 스테디셀러가 아닐 수 없다. 전설적인 경지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 것이다. 이는 상업성 혹은 대중성과, 전문성 혹은 기획성의 절묘한 중간 지점에서의 쾌거가 아니겠는가! 기술서적이거나 교과서도 아니고 출판에 관한 개론서 격인 이 책이, 그리고 인쇄기술의 발달과 편집작업의 컴퓨터화로 지금은 고색창연한

기억 속의 과정들이 되어버린 편집과 제작의 전 과정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이 무슨 이유로 그 긴 시간을 장구하게 견뎌 냈을까?

나름의 이유를 추정해 보니 금방 몇 가지가 드러난다. 매킨토시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출판 혹은 인쇄의 작업이 간편해지면서 출판의 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이 책의 생명력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인쇄와 출판은 그 과정을 제대로 모르면 대단히 난해한 작업이다. 출판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고된 작업이다. 결과물로만 책을 접하는 독자들은 그 세세한 과정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출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도 이 책의 생명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간편해진 작업의 결과로 인쇄, 출판의 역사와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또한 이 책의 존재 이유이다. 간편해진 작업의 일례로 제판작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손을 빌리던 그 많은 과정들이 사라지면서 작업은 간편해지고 매킨토시의 대중적인 보급은 표현의 영역을 무한대로 넓혀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김성재 선생이 낸 ‘스태디 셀러’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진정한 인쇄인, 혹은 진정한 출판인의 자세

를 견지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간편한 작업과 적은 비용이 출판을 우습게 알고 인쇄를 경시하는 경향으로 흘렀다는 이야기다. 그러다보니 출판을 천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인쇄 브로커, 출판 브로커들만 설치고 다니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출판을 이해하고 진정한 출판인이 되기 위한 뜻을 가진 사람에게 이 책은 제대로 만들어진 입문서이기 때문에 이 책의 효용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충실한 과정이 없는 결과는 금방 그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매킨토시만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자에게서는 출판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제작에서도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 인쇄의 원리, 효과적인 비용산출, 제작에서의 원활한 진행, 출판의 사회적 기능, 이론과 실제에서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순발력과 임기응변 등은 단순한 기능의 습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가치는 단순한 입문서의 경지를 넘어섬은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독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

절로 고개 숙여지는 외길 50년

무릇 일은 사람을 따라가는 법이다. 그것이 어떠한 내용의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더욱 돈 안되는 출판에 있어서는 무슨 말을 하랴. 굳이 출판이 돈이 안

된다고 함부로 단정하는 것도 건방진 일인
 긴 하지만 학술서적이라 하면 웬만한 사람
 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임에는 불
 을 보듯 흰한 일이다. 한발 더 나아가 그
 일만 50여 년 외길로 해왔다면 아마도 존
 경에 존경을 얹어 조용히 고개 숙일 일만
 남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가 몸담고 있는
 출판사의 이름이 일지사(一志社)일까, 김
 성재 선생은 그런 사람이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한가지 뜻으로만 밀
 고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외길만 걸겠단
 는 뜻이지요. 책을 만들어 사회에 이바지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경로를 단순히 말하는 것
 은 쉬운 일이다. 그리고 흔히 할 수 있는
 말, 그 나이쯤 되면 으레 할 수 있는 말,
 적당한 선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은 듣는 사람은 물론 말하는 사람도 쉽
 다. 그러나 행동하고 실천하고 나아가기

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의 정신
 과 인격과 세계가 완성되기가 어려운 법
 이다. 그런 면에서 김성재 선생은 ‘일가’
 를 이루고 ‘세계’를 이룬 사람으로 보아도
 무난하리라 싶다.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옆으로 비켜나지 않으며
 외부의 영향에 현혹되지 않으며 올곧게
 자기의 길만을 걸어가는 사람, 자기의 길
 (道)을 가는 사람(人)을 나는 도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김성재 도인, 지나치지도 않
 고 넘쳐나지도 않는, 늘 자기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일지사와 일지(一志)의 서곡

1956년, 스물 여덟의 나이에 빗을 얻어
 출판사를 시작한다. 이미 편집사원으로 출
 판인생을 시작한 후였다. 우리가 학창시절
 에 읽었던 『학원』이라는 잡지를 그가 창간
 하고 편집장을 했다는 대목에선 지난 세월
 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빌려보기 위해 대기목록에 이름을 올려야
 했던 시절이 나에겐 있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표지의 예술성과 상업성의 문제로 이
 건을 보이던 회사와 『학원』 제2호를 끝으로
 결별하고 직접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다.
 일지사와 일지(一志)의 서곡이었다.

국어 참고서도 만들고 세계사 참고서
 도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빚
 도 갚아 나갔다. 그러나 그런 성공이 마
 냥 기쁜 것만은 아니었다. 창조적 기쁨의



결여는 그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다. 학습참고서를 내면서도 조금씩 학술서에도 손을 대다가 70년대로 들어서면서 온전히 학술서 출판으로 방향을 굳혔다. 출판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한국학보』(韓國學報)라는 계간지를 내기 시작해 지금까지 24년을 보냈다. 『한국학보』 발행이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1977년 3월 12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 본다.

요즘 연구기관도 아닌 한 개인 출판사가, 출판으로 번 돈을 출판에 再投資하는 방법의 하나로, 季刊 학술지 『한국학보』를 6집까지 발간하고 있는 하나의 본보기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그 사명을 안고 나서는 출판인의 良識이 보편화될 때, 출판인의 사회적 地位와 출판문화의 금지도 아울러 높아질 것이라 본다.

또, 1980년 9월 13일자 신아일보에는 이렇게 썼다.

민간 출판사 一志社가 펴내는 국내 유일의 학술계간지 『한국학보』가 80년 가을호로 창간 5주년을 맞았다. 역사학, 고고학 등 각 학회들이 자기 분야 회원들끼리만 학회지를 발행하는 게 고작이던 우리 학계에 한국학 전반의 연구실적을 다뤄서 각 영역간의 교류를 꾀해 보자는 또 하나의 모험이 정열만으로 5년을 이어온 것이다. ……처음 발간시 인정조차 안 해주던 일반회원들은 그간의



일지사에 가면 검여 유희강 선생의 글씨를 볼 수 있다

꾸준한 업적으로 어느 학회에서나 인정하는 위치를 굳혔고 “한국학 정립은 學界보다 오히려 일지사의 『한국학보』가 해주고 있다”는 찬사까지 듣게 되었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한국학보』의 위치는 참으로 고고한 경지에 있다. 한 사람의 막연한 공명심이 아니라는 것은 그토록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의 소요에서도 드러난다. 어찌보면 무모하리만큼 저돌적이다.

“처음 학술지를 내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각계 석학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모인 날, 김원룡 교수가 나를 위해서 극구 말렸습니다. 요새 말로 도시락 싸들고 말린 것이지요. 또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충고이기도 했으니깐요. 그러나 한 번 결심해 놓고 물러설 제가 아니었지요. 그게 벌써 25년 전이네요. 제가 적자를 각오하고 굳

사전에 보면 ‘간출(刊出)’이라는 말이 있다. ‘발간하여 냄’이라는 뜻이다. 유추치고는 묘한 유추이긴 하지만, ‘간추리다’라는 말을 널리 쓰이게 한 그 마음과 뜻으로 그가 간출하는 책이, 세상이 빛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우리나라의 기초학문과 인문학 뿐만 아니라 한국출판의 좌표로서 그의 인생을 고귀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 때문이라.

이 『한국학보』를 내겠다고 우긴 까닭은 한국학의 전반적 연구 수준을 신속히 제공해서 학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있었지만, 한국학 정보를 먼저 얻으려는 개인적인 속셈도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세운 초심을 평생 유지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면서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원칙을 스스로에게 매섭게 강요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앞에 두고 오로지 매진하는 사람은 성직자로서의 면모를 풍긴다. 그는 자신의 종교가 출판이며 피 속에는 문자가 흐르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의 완성이 출판인으로서의 순교를 꿈꾼다. 그는 출판인으로서의 성직을 종신서원(終身誓願)한 사람처럼 보인다. 아니, 보인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

시인 유경환 선생의 한마디가 그를 총평한다.

“『한국학보』를 만드는 꼬장꼬장한 사람, 출판계의 황순원이라 불리는 사람이니.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술서적 중 좋은

책은 모두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진정한 출판인의 명예와 긍지를 지킬 줄 아는 한 사람이야.”

영원한 간출인(刊出人) 김성재

그의 재미난 개인적인 야사(野史) 한 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에 출판에 대한 생각과 집념, 우리말에 대한 애정이 어떠한지 명쾌한 해답이 나온다. 그의 글 ‘나의 길’에서 조금 빌린다.

회사에서는 앞으로 각 과목에 걸쳐 시리즈로 학습참고서를 낼 작정임을 밝히면서 시리즈 책제에 대한 사내현상을 공모했다. ‘최신 이니’ ‘표준 이니’ ‘모범 이니’ 하여 여러가지 한자어로 된 것이 튀어나왔는데 그중에 ‘간추린 이란’ 낱선 것이 끼어들었다. 모두가 그 뜻을 몰라 의아한 표정들이었다. 그럼에도 투표 결과는 ‘간추린 이’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되었다.

‘간추린’의 기본형 ‘간추리다’는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만 쓰였을 뿐 그때까지 사전에 표제어로 나와 있지도 않은 말이었다. 이 ‘간추린’ 시리즈는



6.25이후 피난지인 대구에서 한껏 기세를 올려 학원사의 전신인 대양출판사의 표상과 같이 알려지고 회사의 기반을 굳히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뜻을 아는 이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생소한 ‘간추리다’라는 말이 사전에 처음으로 실리게 된 것은, 출판사를 차리고도 할 일이 많지 않던 나에게 교정을 보아달라는 청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1958년에 출간된 한 국어사전에다 나는 이 낱말을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이다. 이것은 교정자의 월권행위이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말을 멋대로 고치거나 보태거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저작자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행위이다. 어찌 되었건 죽은 말[死語]이나 다름없던 이 말이 되살아나 오늘날 ‘간추린 뉴스’ 등과 같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을 보면 출판물이라는 것의 위력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다.

사전에 보면 ‘간출(刊出)’이라는 말이 있다. ‘발간하여 냄’이라는 뜻이다. 유추치고는 묘한 유추이긴 하지만, ‘간추리다’라는 말을 널리 쓰이게 한 그 마음과 뜻으로 그가 간출하는 책이, 세상이 빛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우리나라의 기초학문과 인문학 뿐만 아니라 한국출판의 좌표로서 그의 인생을 고귀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 때문이리라.

영원한 ‘간출인(刊出人)’ 김성재, 출판에 향한 그의 ‘감출’ 수 없는 열정이 면면이 이어진다면 출판문화의 초석은 이미 다져져 있으리라.